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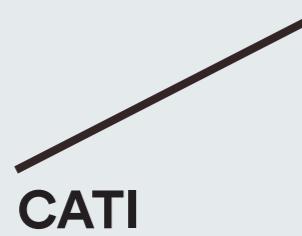
CATI

제101차 CATI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26.5 43.3 26.7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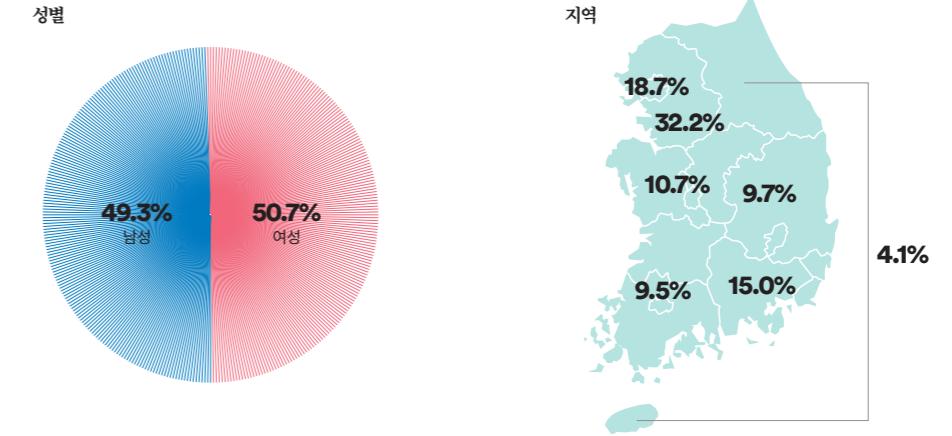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6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5년 1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4.2% [총 통화시도 7,084명]
조사기간	2025년 2월 7일 ~ 2월 8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WWW.
FLOWERRESEARCH.
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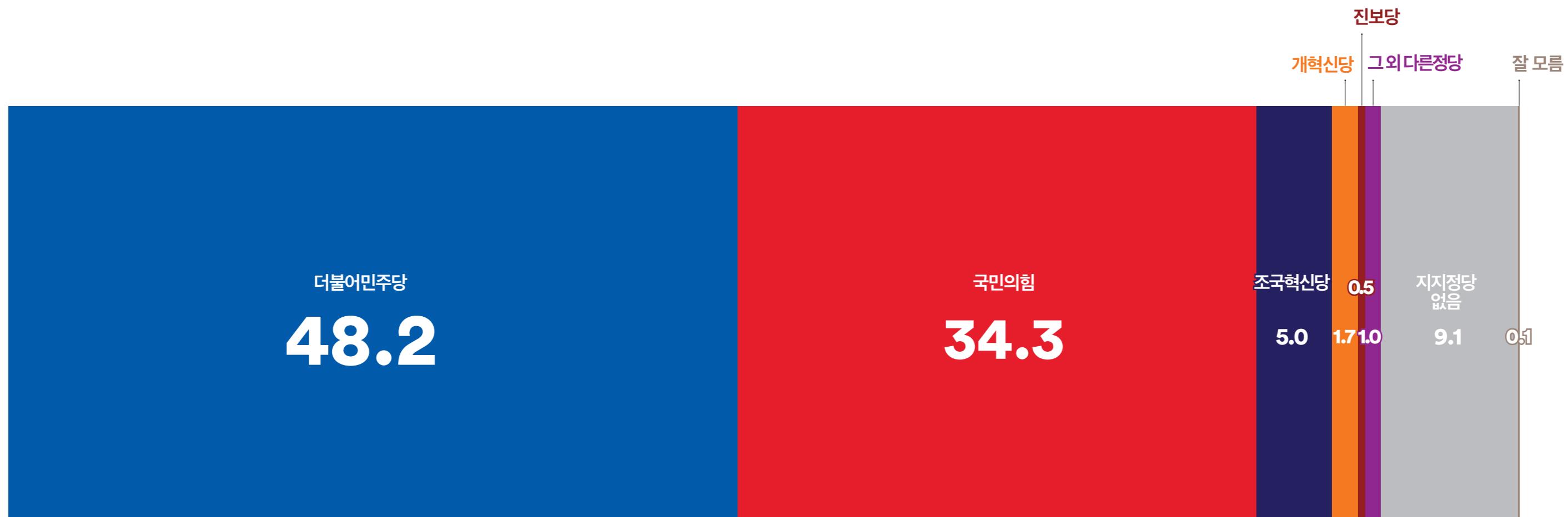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6	100.0	1006	100.0	1.00
성별	남성	496	49.3	497	49.4
	여성	510	50.7	509	50.6
연령	18-29세	156	15.5	156	15.5
	30대	156	15.5	150	14.9
	40대	172	17.1	176	17.5
	50대	198	19.7	197	19.6
	60대	176	17.5	178	17.7
	70세이상	148	14.7	149	14.8
지역	서울	188	18.7	186	18.5
	인천경기	324	32.2	325	32.3
	대전세종충청	108	10.7	109	10.8
	광주전라	96	9.5	98	9.7
	대구경북	98	9.7	98	9.7
	부산울산경남	151	15.0	148	14.7
	경원제주	41	4.1	42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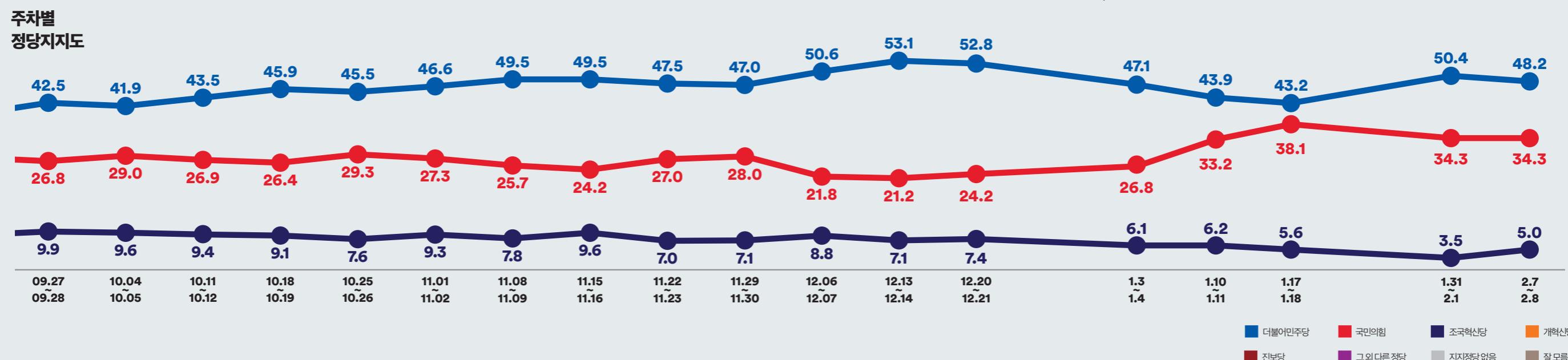


본 조사 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값을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군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cut-off: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값값은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답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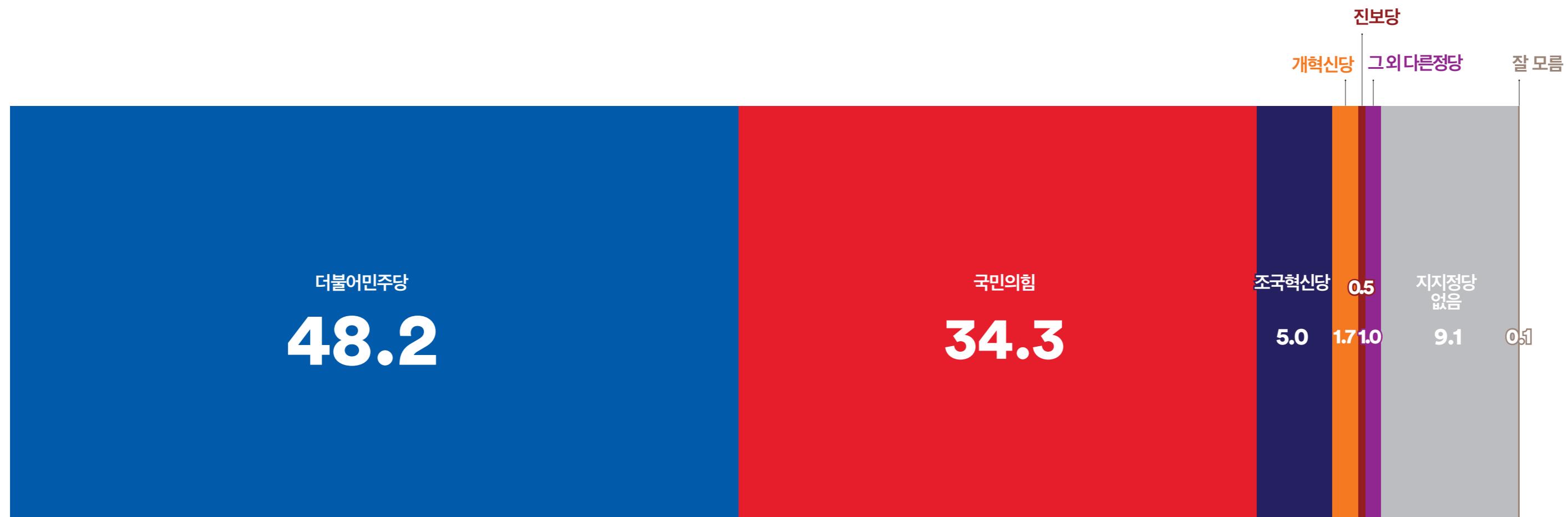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100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2%p 하락, '국민의힘' 변동 없음, '조국혁신당' 1.5%p 상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13.9%p (지난 조사: 16.1%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18.9%p (지난 조사: 19.6%p)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모두 '국민의힘' 대비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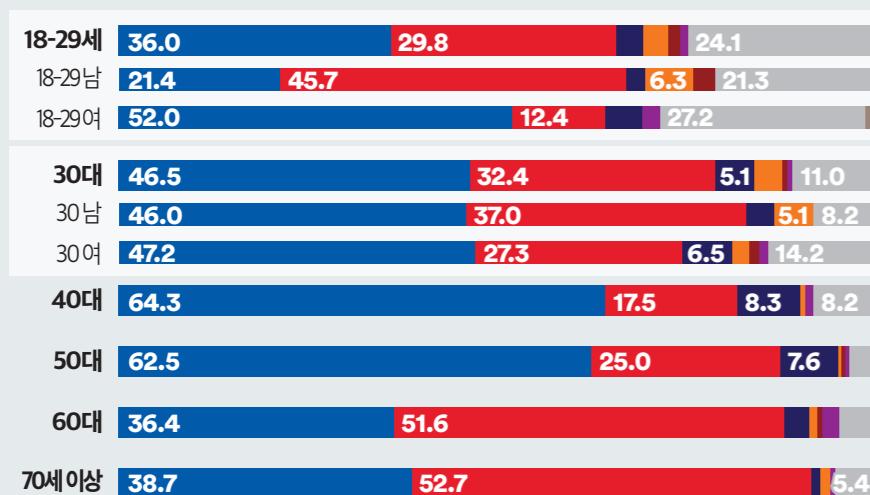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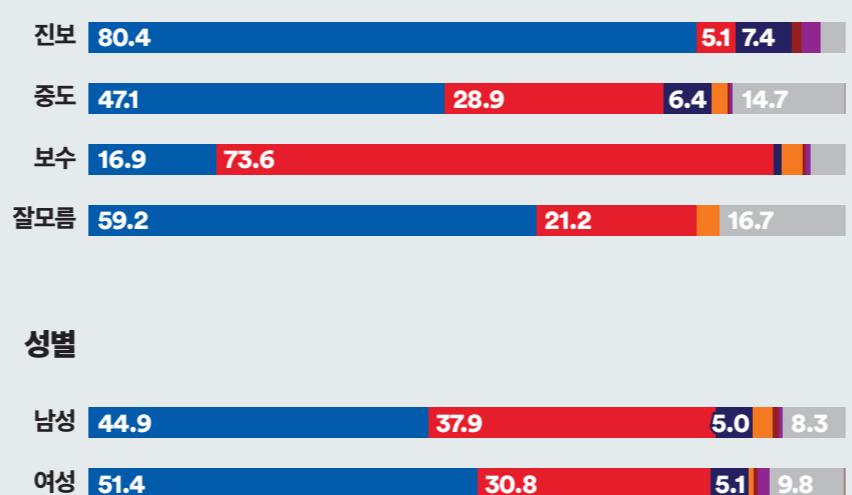


TK·P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과 50대 이하 응답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은 TK, PK, 60대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7.1%, '국민의힘' 28.9%, '조국혁신당' 6.4%
중도층에서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18.2%p(지난 조사: 28.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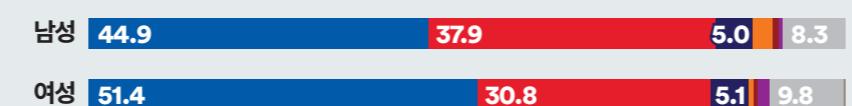
여러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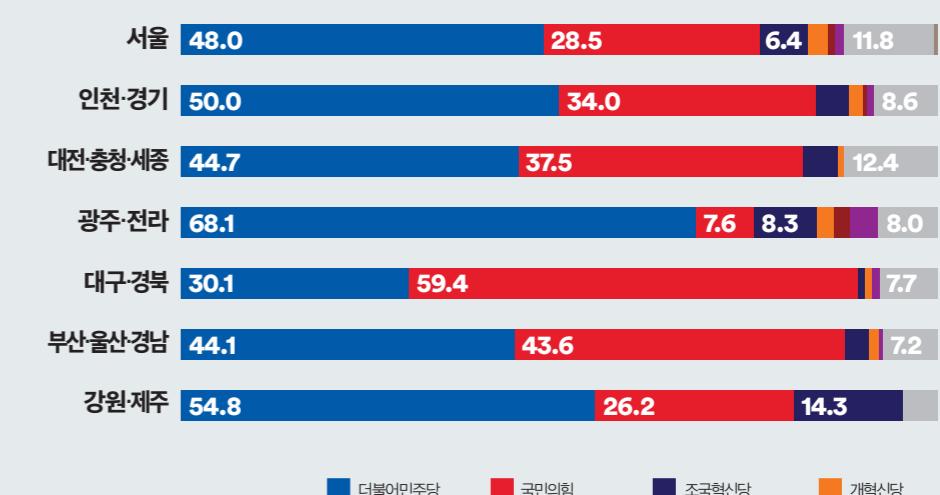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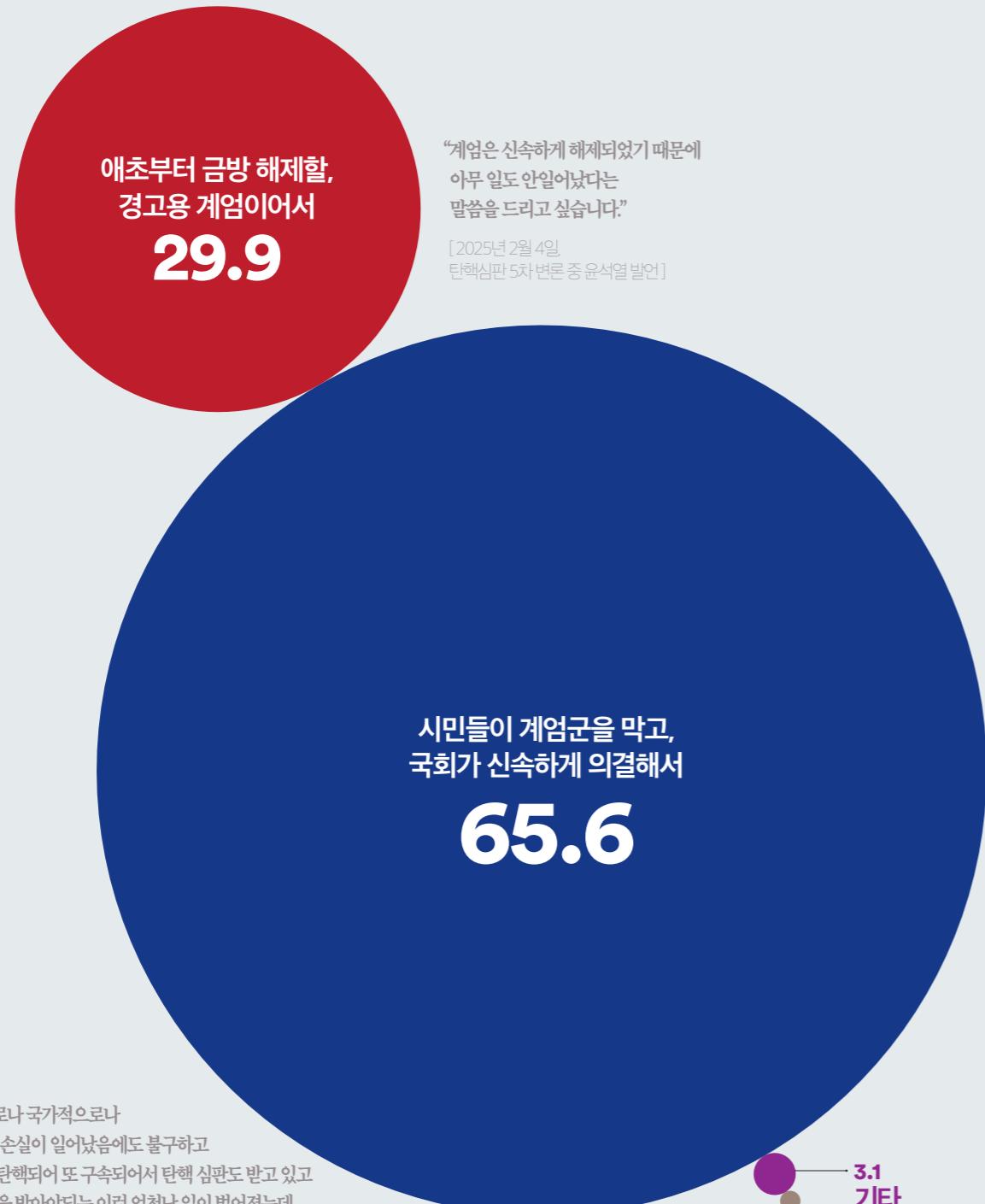
설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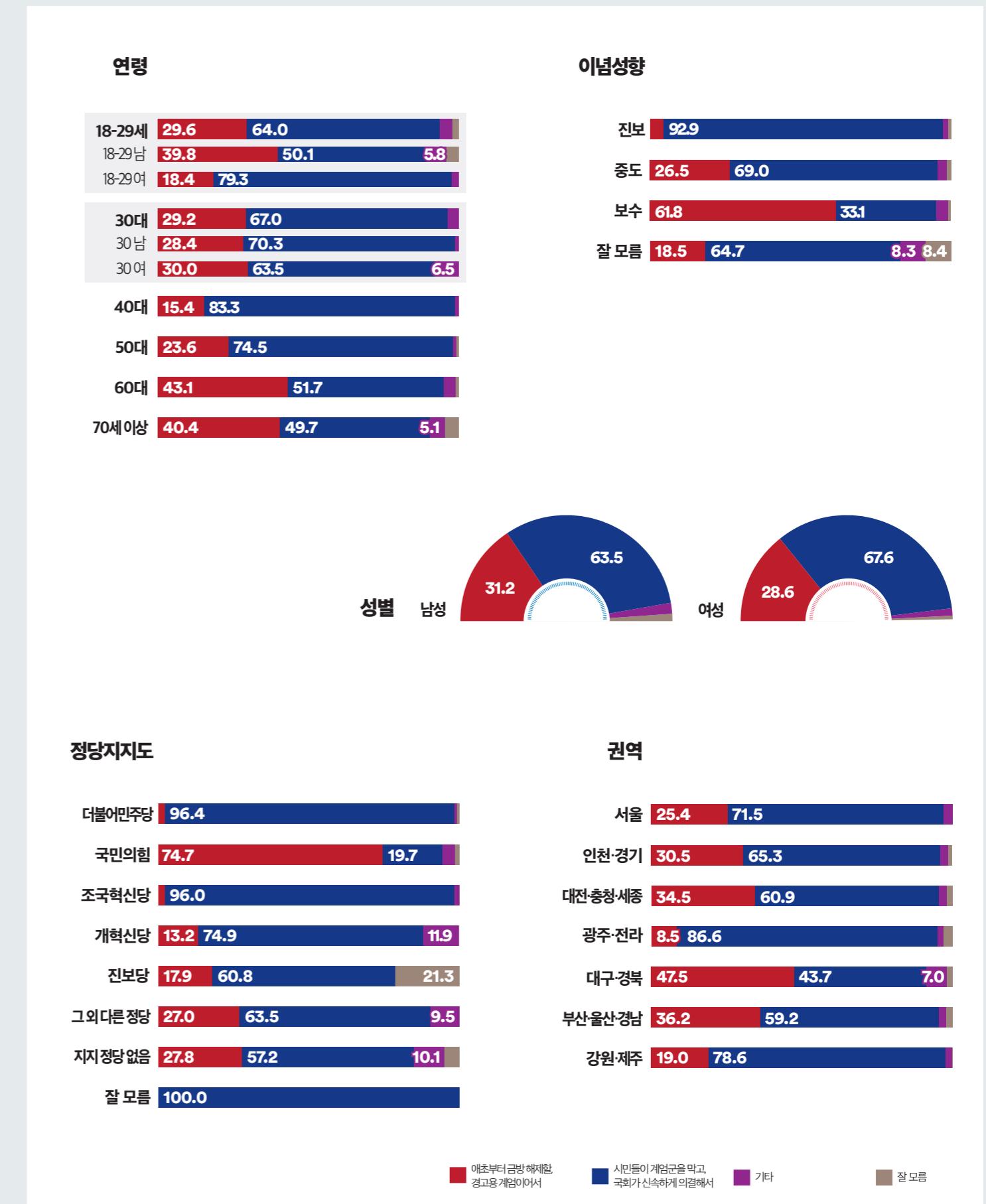


Q.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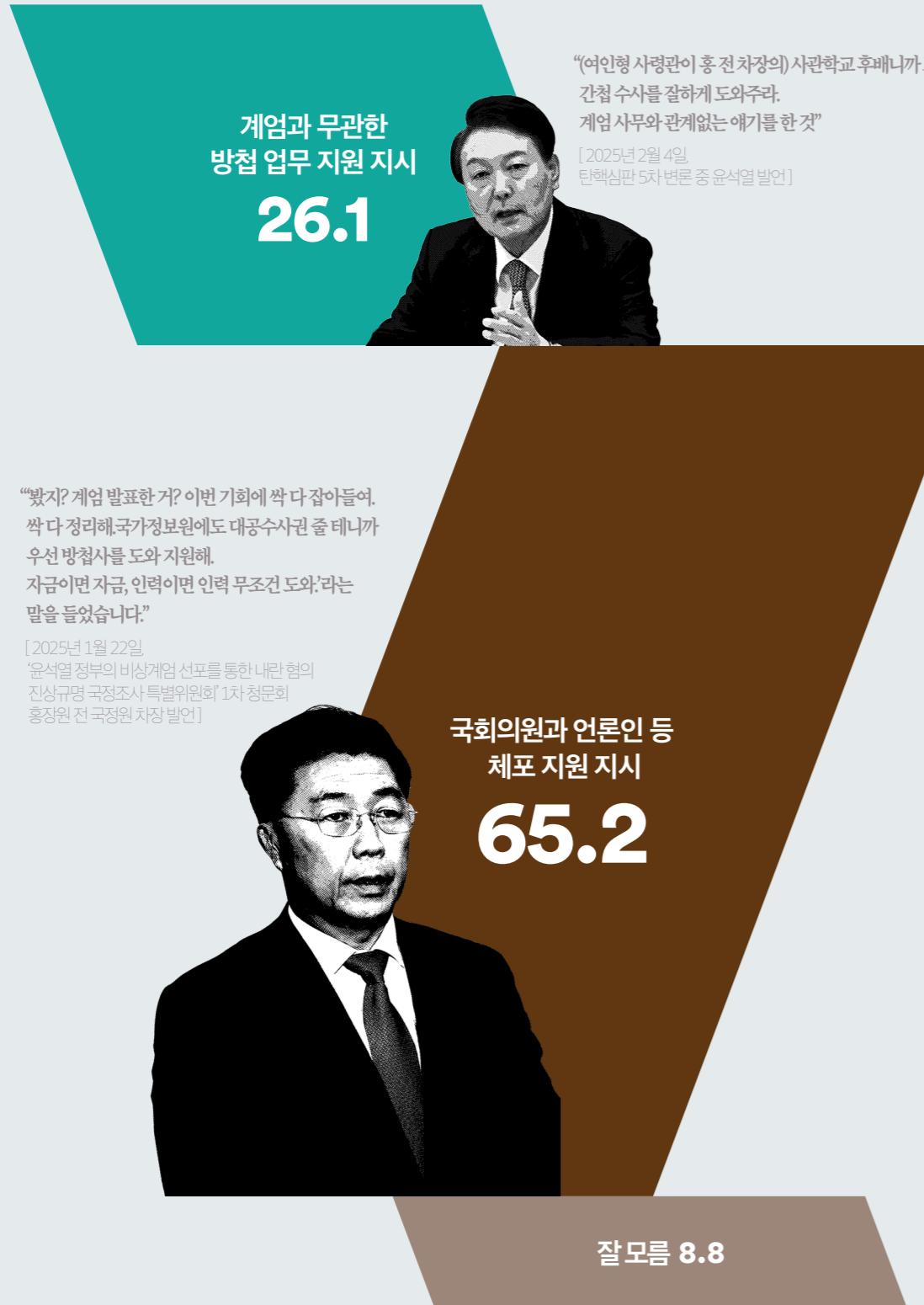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 정도는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고 국회가 신속하게 의결해서’라고 압도적으로 응답(격차: 35.7%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도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고 국회가 신속하게 의결해서’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보수층(61.8%)과 국민의힘(74.7%)에서는 ‘애초부터 금방 해제할 경고용 계엄’이라는 의견 우세



윤석열-홍장원 지지

Q.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화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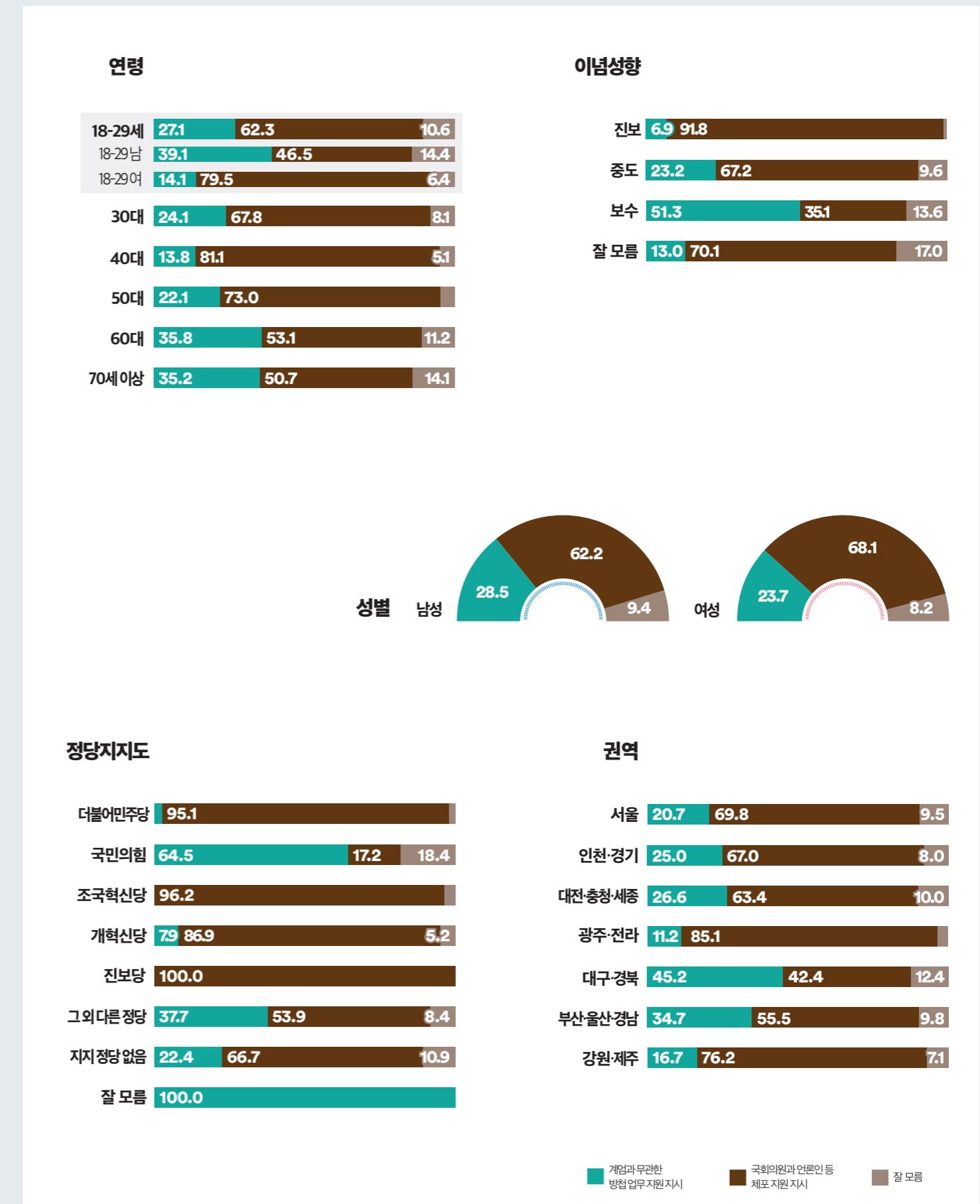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 정도는 윤석열이 전화로 말한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은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체포 지원 지지’라고 응답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도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체포 지원 지지’라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64.5%), 보수층(51.3%)에서는 ‘계엄과 무관한 방첩 업무 지원 지지’라는 응답이 우세

18~29세 응답층의 경우 남성층의 ‘방첩 업무 지원 지지’ 응답 비율(39.1%)이 여성층(14.1%)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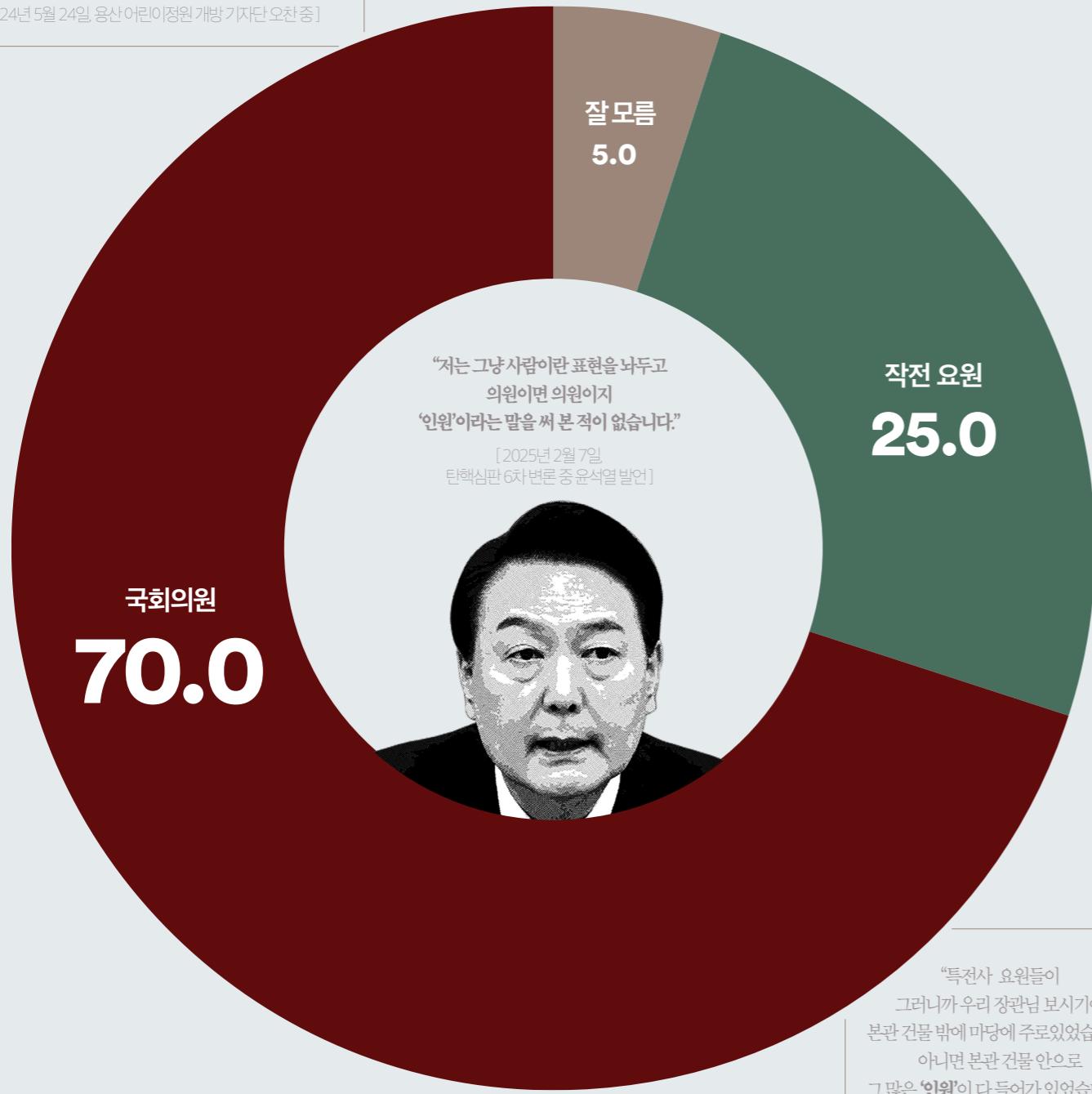


의원 VS 요원

Q. 윤석열 측은 현재에서 계엄 당시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이 국회에서 끌어내려 한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
[2024년 5월 24일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기자단 오찬 중]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윤석열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격차: 45.0%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도 '국회의원'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67.2%), 보수층(52.0%)에서는 '작전 요원'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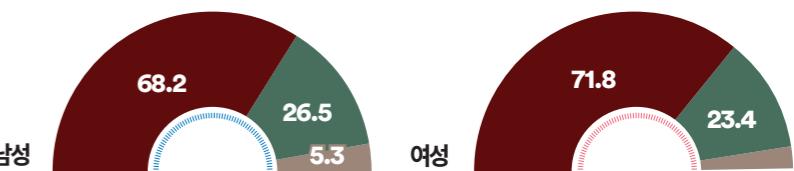
연령

18-29세	74.2	16.4	9.5
18-29남	64.3	20.9	14.7
18-29여	85.0	11.4	3.6
30대	76.3	20.0	3.7
30남	71.8	24.5	3.7
30여	81.1	15.1	3.8
40대	82.4	14.8	2.8
50대	76.4	20.7	2.9
60대	54.7	40.7	4.6
70세이상	54.6	37.7	7.6

이념성향

진보	94.8	2.1	3.1
중도	72.6	21.8	5.6
보수	39.1	52.0	8.9
잘 모름	87.5	9.4	3.1

성별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8.4	1.5	0.1
국민의힘	22.0	67.2	10.8
조국혁신당	100.0	0.0	0.0
개혁신당	92.1	7.9	0.0
진보당	74.4	25.6	0.0
그외 다른 정당	53.9	37.7	8.4
지지 정당 없음	81.4	11.3	7.3
잘 모름	10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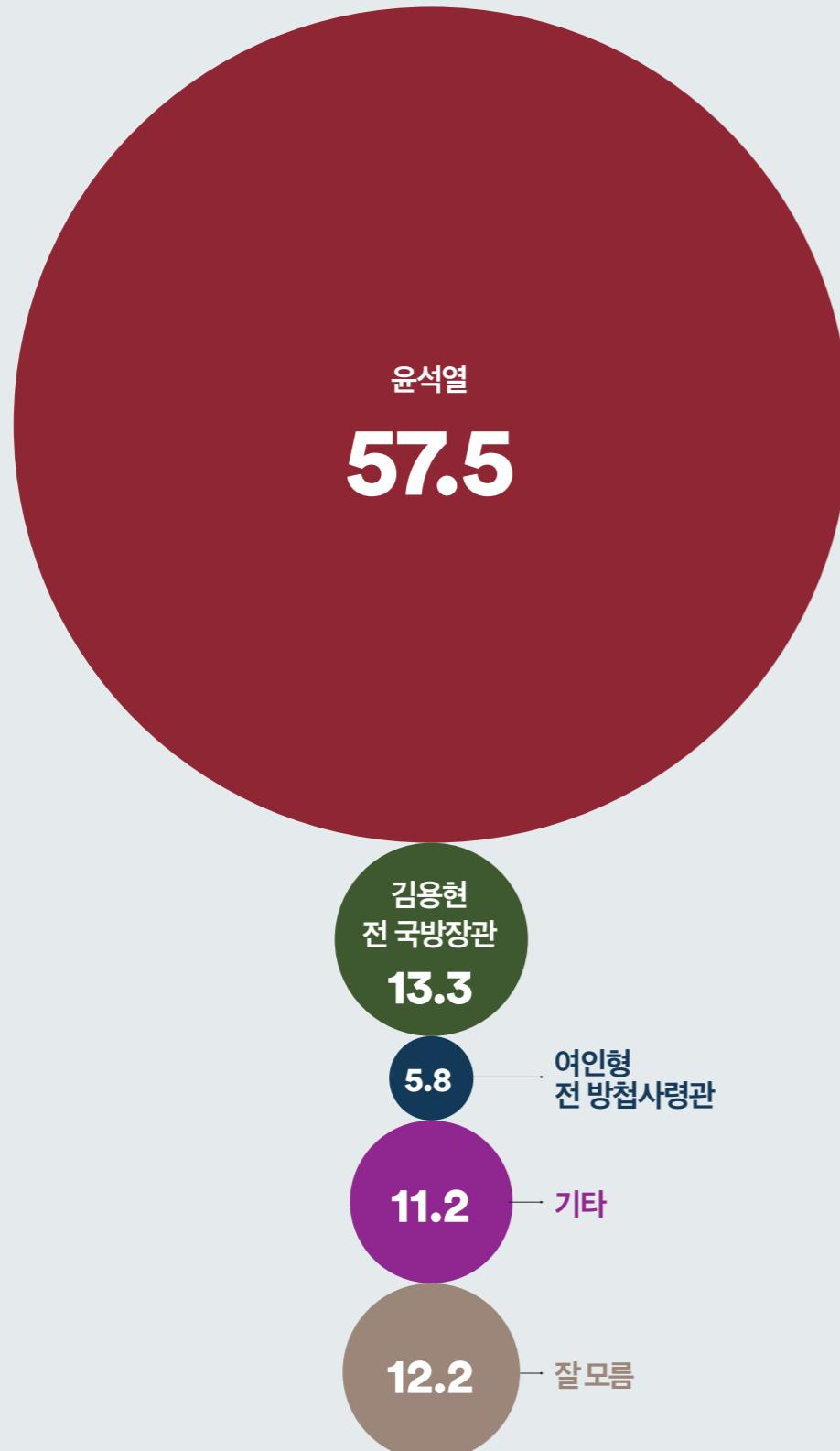
권역

서울	73.8	21.2	5.0
인천·경기	71.6	22.1	6.3
대전·충청·세종	68.9	26.5	4.6
광주·전라	92.2	7.8	0.0
대구·경북	46.0	47.3	6.7
부산·울산·경남	61.3	35.5	3.2
강원·제주	78.6	19.0	2.4

체포 명단 작성자

Q.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을 비롯한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등이 포함된 계엄 체포 대상자 명단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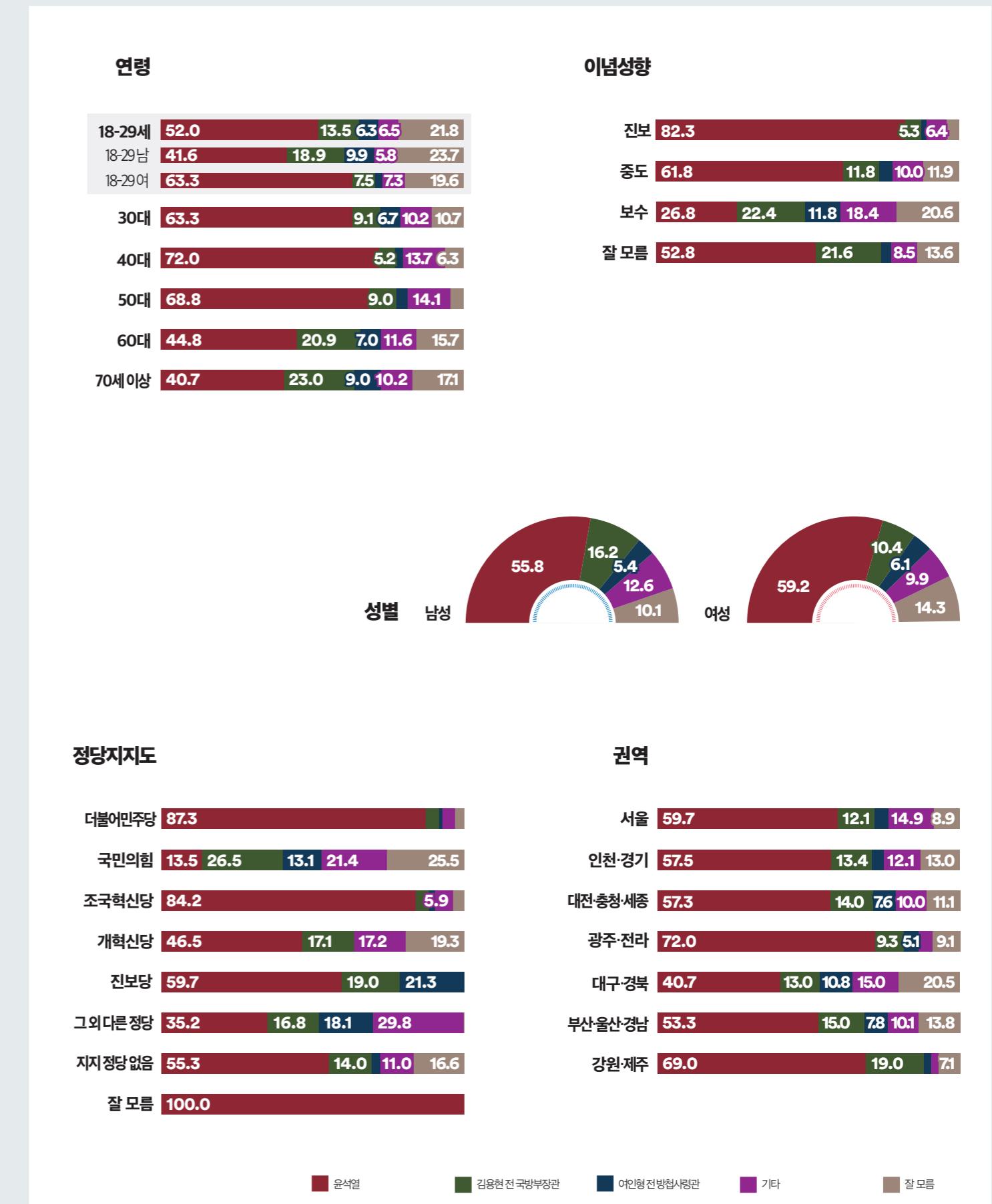
이 명단을 선정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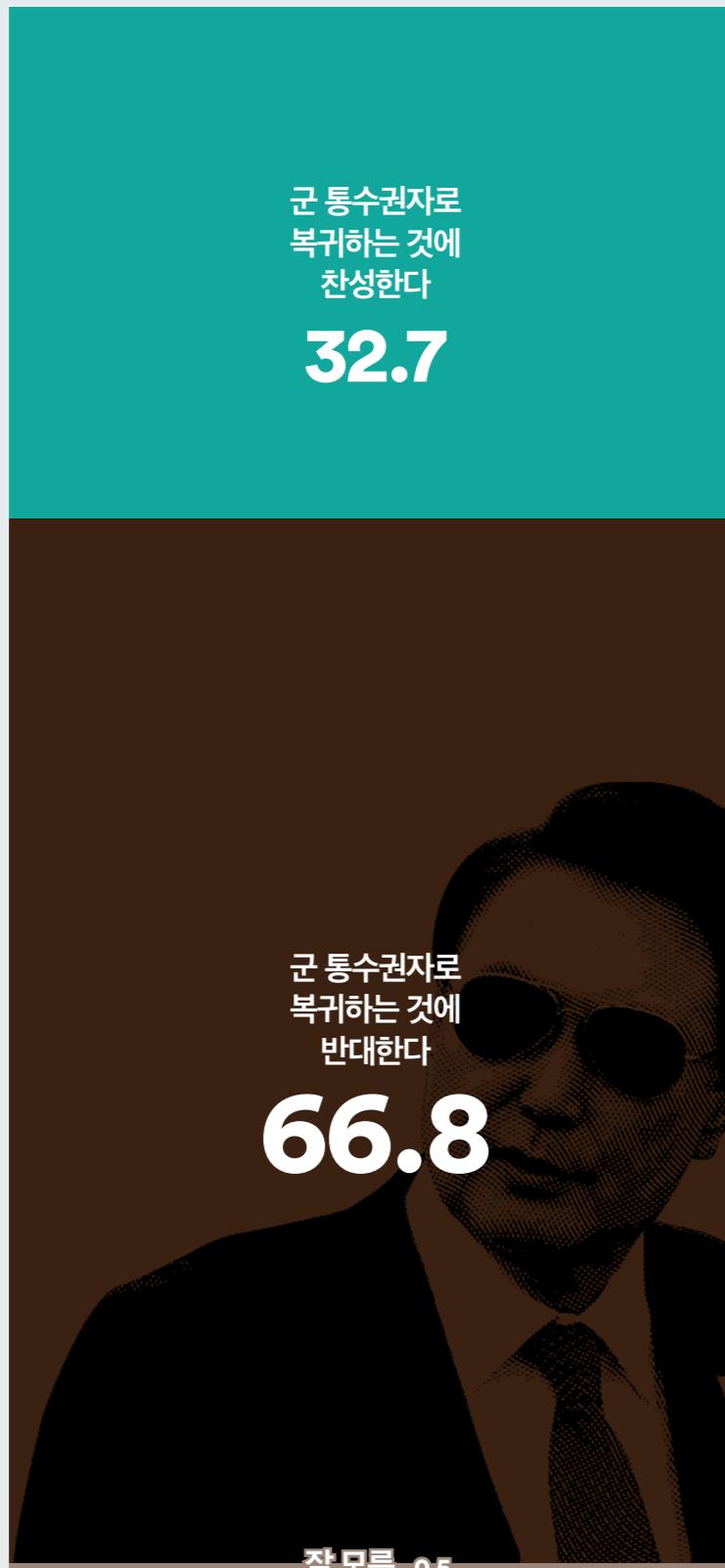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체포명단을 작성한 사람은 '윤석열'일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

모든 연령층과 이념층, 권역에서 '윤석열'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를 보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김용현', '잘모름', '기타' 응답이 더 많고, 뒤이어 '윤석열'과 '여인형'이 팽팽하게 나타남



Q. 윤석열이 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은 '윤석열이 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34.1%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복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복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진보층(95.4%)과 중도층(70.5%),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응답층(81.1%)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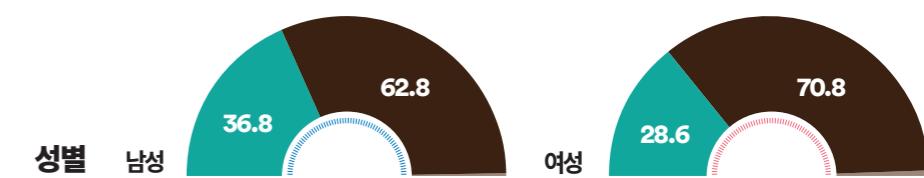
국민의힘 지지층(86.8%), 보수층(68.4%)은 '군통수권자 복귀에 찬성한다'고 응답

연령

18-29세	30.4	68.3
18-29남	44.6	55.4
18-29여	14.9	82.4
30대	27.8	70.9
30남	30.5	67.0
30여	24.9	75.1
40대	16.3	83.7
50대	24.1	75.9
60대	48.2	51.8
70세이상	52.0	47.2

이념성향

진보	95.4
중도	28.8
보수	70.5
보수	68.4
잘 모름	30.9
잘 모름	18.2
잘 모름	81.8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8.8
국민의힘	86.8
조국혁신당	100.0
개혁신당	25.0
진보당	75.0
그외 다른 정당	100.0
지지정당 없음	46.1
잘 모름	53.9
잘 모름	16.7
잘 모름	81.1
잘 모름	100.0

권역

서울	28.5	71.0
인천·경기	31.8	67.9
대전·충청·세종	31.2	67.7
광주·전라	12.5	87.5
대구·경북	57.6	42.4
부산·울산·경남	39.5	59.2
강원·제주	26.2	73.8

* 100차 정례조사 결과(2025.1.31-2.1 진행)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502_02

여론조사 